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② 적을수록 풍요롭다



▶한줄 요약
현재 전세계는 GDP지표에 매몰된 성장주의 사회이다. 이로 인해 과도한 소비가 이뤄지며 환경과 인간은 자본에 의해 무한으로 착취를 당하며 시름하고 있다. 성장아닌 탈성장과 성숙의 삶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해법, 탈성장 · 성숙사회



한 공업지구의 모습. 현재 성장주의를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는 무한한 착취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자원뿐만 아니라 인간도 해당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닌 성숙이다.

무한성장 생명은 없다

아기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아장아장 걸으며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기쁨이다. 그러다 10대 초반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될 무렵 수염이 자라고 성징도 나타난다.

사춘기를 지나 고등학생이 될 무렵까지 급격히 성장하여 매년 눈에 띄게 키가 자란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는 20대 중반 쯤 되면 대체로 자랄 만큼 자라 더 이상 성장발육하지 않고 키가 크지 않는다. 이제 체형 성장을 끝났지만 내부적으로 신체의 성숙은 그때부터 계속돼 이후 100세까지 75년간 지속된다. 외형적인 성장은 20대까지이고 그 이후는 '나이값'으로 표현되는 성숙의 시기인 것이다. 이 과정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물과 유기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어린 시절부터 초기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만 일정한 단계의 성장을 이룬 뒤에는 더 이상 외형적 성장은 중단되고 성숙해지고 완숙해지는 것이다.

무한성장주의 산업사회

이토록 자연의 모든 생명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뒤에는 질적으로 무르익는 성숙의 단계에 들어서지만, 우리의 산업사회의 시스템, 자본주의 경제성장은 그 끝이 존재하지 않는다. 종착 지점없이 무한히 성장하는 것을 당연한 정언명령으로 여긴다. 성장(Glowth)이란 말은 키가 커지듯 높아지고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내적인 성숙(Mature)이나 질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저 양적으로 직선적인 발전을 뜻할 뿐이다.

이러한 직선적인 성장주의는 '진보'라는 표현에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 역사 발전을 선형적이고 직선적으로 최대한 '수직에 가까운 성장'을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고 평가되는 사회를 진보적인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낫다'의 기준은 생태환경, 사회문화는 무시하고 오직 '경제성장' 일뿐이다. 아무튼 성장의 최종 종착지는 없다. 무한정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계는 이러한 성장의 직선성 ,무한정성을 용인하지 않는다. 자연계는 순환하고 윤회하는 생태시스템이다. 서로 연관맺으며 상호의존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인이자 결과로 삼으면서 순환하는 것이 자연계의 이치이다.

이러한 직선적 역사관은 히브리 기독교적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야훼가 천지를 창조한 '태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가는 직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성장주의 경제와 선형적인 역사관은 바로 기독교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 윤회의 시간관은 다르다. 우주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을 윤회하고, 사물은 생주이멸(生住異滅)을 반복하며, 인간은 생노병사(生老病死)를 윤회하는 순환의 시간관이며 자연관이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바로 이러한 역사관과 시간관에서 비롯된다. 나에게 나아가 나에게 돌아오는 순환과 윤회의 인연과의 이치를, 무한히 성장하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직선적인 역사인식과 사회경제의 문화로 인식하여 자연을 무한히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이 멈추면 곧 '죽음'이라고 착각한다. 마치 구르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나, 돌지 않으면 쓰러지는 팽이처럼 성장을 가속화해야 하는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이 성장주의가 기후위기와 인류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한성장의 파국적 신화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성장지표가 인류를 파탄낸다

1930년 대공황기에 미국과 서유럽의 경제가 황폐화되자 각국의 정부는 대책에 부심했고, 특히 미국에서는 벨라루스출신의 젊은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에게 매년 미국이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돈의 가치로 나타내는 회계시스템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그가 개발한 지표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측정에 토대를 제공한 국민총생산(GNP)이였다. 이것은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소비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구를 생산하기 위해 나무를 베고 숲을 쓰러뜨리면 GDP가 상승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몸이 아파 병원을 많이 이용해도 GDP는 올라간다. 자연환경이 오염되든 말든, 생물이 죽든 말든, 자원이 고갈되든 말든, 인간의 협력이나 배려, 도덕 등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GDP지표 매몰된 성장주의 사회
지구 환경 · 인간 무한착취 '시름'
선진국 과도한 소비가 환경 파괴
성장이 아닌 '성숙의삶' 지향해야

GDP성장은 그야말로 생산(Product)량을 성장의 지표로 측정되는 것이다. 이 생산은 자연으로부터 추출, 채굴을 기본으로 한다. 무한한 성장은 무한한 생산이 있어야 가능하며, 무한한 생산은 곧 무한한 소비가 있으며, 무한한 폐기를 뜻한다. 무한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한정한 자원채굴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당연히 오늘의 산업사회 자본주의는 자연과 자원이 무한정하다는 전제위에 서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잘못된 전제가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이다. 실제의 팩트는 '하나뿐인 지구(Our Sole Earth)'라는 사실이다. 지구는 무한하지 않고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의 추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를 위기와 파탄을 초래하는 것은 자연은 무한하다는 미망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탐욕의 산업사회 자본의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후위기, 선진국들 착취서 비롯

세계경제가 매년 3% 성장을 한다면 그 증가의 속도는 경제총생산이 23년마다 2배가 되는 것이며, 46년이면 4배가 되고, 100년이 되면 20배로 증가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후 100년이 되면 370배가 되고 다시 100년이 지나면 7000배로 커진다는 뜻이다. 300년 만에 7000배나 늘어나는 경제규모가 된다고 〈적을수록 풍요롭다〉의 저자 제이슨 히켈은 말한다.

오늘날 경제생산량은 자연자원으로부터 추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배 성장한다는 것은 20배로 나무를 베거나 석탄이나 석유를 더 많이 채취하고 우라늄을 더 많이 채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뿐인 지구는 그 매장량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폐기와 오염물질의 정화능력의 한계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결국 성장(Glowth)이 문제다. 그래서 탈성장(Deglowth)이다. 성장이 아닌 다른 방식의 삶의 양식이 있음에도 오로지 성장주의만 고집하는데 파탄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른바 선진국들의 과소비가 기후위기의 원인이라면 가난한 나라의 저소비가 바로 지구가 파탄나지 않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풍요는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시아에 있는 자원의 대량채굴과 수탈을 통해 벌어들인 풍요이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거나 아니면 노예노동에 가까운 착취를 통해 누린 성장이다. 더욱이 기후위기의 1차 피해는 원인 제공자인 북반구의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고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사람들이 가장 먼저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기후위기는 전인류가 똑같이 1/N의 동등한 책임이 있지 않다. 얼마 전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를 포함한 부자나라들이 더 많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차별적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탈성장, 성숙사회의 가치들

우리는 위기를 앞두고 포기와 선택을 강제 받고 있다. 기후위기는 결국 탈성장이며, 성장을 패절하고 포스트(脫) 자본주의 모델로 가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를 바꿔야 한다. 파국의 원인인 GNP, GDP를 폐기하고 생태적 가치와 삶의 질을 포함하고 있는 대안적 지표로서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참진보지수 (GPI, Genuine Progress Indicator)나 지구행복지수 (HPI, Happy Planet Index)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많은 것, 높은 것을 지향하는 성장과 풍요의 가치가 인류를 비극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 적게 소비하는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이며 "성장사회가 아니라 성숙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기후위기시대에 우리가 선택해야할 방향이다. 또한 성장시대는 '위로 성공하는 삶'을 지향했지만, 성숙의 시대에는 '옆으로 성공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래서 이기적 개인이 아니라 돌봄, 환대, 협력, 협동, 상호부조, 공동체성 등 관계성이 중요한 사회적 지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에는 농업자립, 순환사회, 도시텃밭, 공동체 통화, 공유사회, 기본소득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선택하는 사회이다. 특히 최근 '커먼즈'라는 공유의 가치가 중요한 문화가 되고 있다. 공유가 넓어지면 개인의 소유의 의미도 약해진다. 프루동은 '소유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글에서 오늘날 위기는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땅에 울타리를 치고 사유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담장치기 '엔클로저'로 인해 점차 더 넓은 소유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나오는 자원을 채취하는 경쟁이 갈등을 초래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푸르동은 소유사회를 해체하는 것, 무소유사회를 만드는 것이 위기의 가장 궁극적인 해결이라고 말한다.

짧은 기간의 이익에 급급한 오늘날의 기업구조와 경제시스템, 4~5년간의 선거기간만 책임지는 정치구조가 아니라 100~200년 뒤의 후손들을 고려하고 동물과 식물 등 자연물의 이익과 권리까지 고려한 생태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이 성숙사회의 정의가 되어야 한다.

제이슨 히켈은 이렇게 묻는다. "세계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찬양하며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격려하면서 왜 경제시스템으로서 자본주의가 최종적 선택지라고 단정하고, 더 나은 것을 만들 시도도 하지 말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대한불교 선밀종은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간부스님 및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가사)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종단사업 참여 안내
포교를 위한 종단사업을 추진하오니
운영(지분참여)에 관심있는 분은 참여바랍니다.
▣ 전자사업(전자뜸질기)
· 국내특허 : 10-2014-0143968 (전자뜸질기)
· 국내상표출원 : 4-2014-058697-9 (전자뜸질기)
뜸의 효과를 세계최초로 전자로 대체 개발한 임맥의 단전, 중완, 신궐, 양천추, 독맥의 명문, 현추, 양관, 양신유의 뜸질
문의전화 ▶ 010-3134-8484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www.sunmiljong.or.kr 총무원 T. 053)854-0803 / F. 053)854-0804